

인천 평북·YMCA, 시민단체 왜 그러나 시민들 한숨

F1 인천그랑프리대회 유치반대 기자회견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가 '인천시 F1 그랑프리 유치반대 기자회견'을 13일 오후 개최했는데 인천시가 적극 반박 대응에 나서 시민들도 힘을 실어주면서 시민단체 주장에 그간 어떤 신뢰성을 주었는지 되짚어보라고 그 일침은 뼈를 때리고 있어 곱지 않다.

인천시민들은 도전을 무서워하면 발전도 없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의견이다. 양 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①지방재정 악화 우려 ②환경 문제 우려 ③인천시민 삶의 영향에 대한 우려감을 밝히고 있어도 대회 유치는 경제적 효과는 만만치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수 시민과 인천시 입장은 당연히 달랐는데 인천시 설명내용을 보면 단체가 첫 번째로 주장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3일 'F1 인천그랑프리 대회 유치단'을 조직하고 F1 대회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인천시는 아직 협의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한다. 인천시 입장은 '영암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이하 영암F1)' 여건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영암 F1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관련, 시민들은 시민단체가



인천 평북·YMCA, 시민단체 인천시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F1 대회 반대하고 있다.

우려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구체적 재정 문제가 왜 우려가 있는지 과학적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알맹이 없는 주장과 달리 구체적인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 행사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인천시 입장은 인천국제공항 등 편리한 교통망이 있어 해외 관광객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특급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충분한 근거는 F1 대회 유치로 인해 인천은 국제도시로 더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분석은 시민단체와 다른 곳을 보는 시각이다.

F1 같은 큰 대회는 다수의 국가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원하고 있다. 인천이 그 중심

에 서는데 응원하지 못할만큼 찬물을 붓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을 두고도 과거 지방정부에서 누렸던 활동과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됐다.

다음 환경 문제 우려이다. F1 2023 IMPACT REPORT에 따르면, 2019년 F1은 지속적 가능성을 위해 2030년 탄소중립(net zero carbon)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F1 축제와 더불어 환경까지 염두에 둔 기조로 노력하고 있다는 풀이로 해석된다.

인천시는 F1 그랑프리는 통상 3일간 대회가 개최되며, 구체적인 대회 장소, 일정이 협의가 되면 대회 기간에 소음 및 분진 공해 등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환경보호를 위해 주최 측과 맞손을 잡고 대회를 축제로 만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다음으로 인천시민 삶의 영향에 대한 우려인데 F1을 인천에 유치하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제적 효과와 홍보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사례로 작년 11월 라스베이거스 대회를 보기 위해 32만 명 관광객이 방문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졌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조 7500억 원(13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출처 참조 : '24.1.19. 이데일리 "카지노시티 옛말... F1·슈퍼볼로 잭팟 터트린 美 라스베이거스 [MICE]", 이런 호재는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인천에서 일어난

다면 환영할 일이다.

인천시는 "F1 대회 유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대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지역업이 힘들고 사회 전반적인 경제 침체기에서 경제적 호황을 누리는 일은 환영해야 할 일로서 시민들의 뜻도 담겨 있다.

F1 대회 유치와 관련해 시민 A씨(남동구, 남 64)는 이런 큰 대회가 인천에서 열리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인천은 지금 세계적 도시로의 부상을 위해 재외동포정이 신설됐다. 재정이란 투자한 만큼 더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상승시키면 도시의 브랜드가 올라간다.

시민단체들의 우려감은 알겠지만 도전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다. 과도한 우려감은 오히려 도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이다. 평소 시민단체들이 국민에게나 인천시민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었는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시민단체의 생각이 인천시민의 생각은 아니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제 "정치적 집단으로 바뀐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참담한 일로서 중립적인 단체 활동을 스스로 했는지 되짚어보아야 할 문제로 시민들의 신뢰감은 오래전 사라졌다"라며 "인천시민들을 위한다면 대안을 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양홍 위원 /문미순 기자

'현재·미래 안전도시 인천'은 우리가 지킵니다

미래 안전전문가(대학생)과 박태환 수영장 집중점검

인천광역시시는 지난 13일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미래 안전전문가인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학생 46명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실시하는 정부의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이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재난대비

활동에 나선 것이다.

올해 점검 대상시설은 598개소로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낚시어선 등의 시설과 주민들이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날 점검한 박태환 수영장은 2013년 준공된 건축물로, 2023년 기준 연간 93만여 명의 생활 및 전문체육인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체육시설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 공무원, 인천시

체육회, 민간전문가,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 등 26명이 참여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수영장 운영에 필수요건인 기계, 전기설 등을 점검했다.

또한, 외부 시설은 드론을 이용하는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가 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을 현장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해 학생들이 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



인천광역시가 13일 문학 박태환 수영장 안전점검하고 있다.

설물 안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술분야 선배인 전문가가 안전점검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줘 미래 안전 전문가 인재 육성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도 미래에도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



사할린동포 이영익 작가의 이야기 전시회 모습.

사할린동포 이영익 작가, 인천시청 중앙홀 전시회 개최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서 거주하며 작품 7점 그려

인천광역시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사할린동포 1세 이영익 씨(95)의 그림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영익 씨가 2018년 연수구 소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 입소한 이후 작업한 그림 중 완성도 있는 작품 7점을 소개했다.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

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개관한 시설로 현재 70여 명이 입소해 거주하고 있다. 앞서 올해 설날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차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한 황효진 정부부시장이 이영익 씨의 그림을 보고 전시회 개최를 제안했다.

전시회를 축하를 위해 참석한 황효진 정부부시장은 "작품에 어르신

삶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익 씨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려왔던 그림을 전시회까지 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인천시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어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미순 기자